

2017년 소방직 출제 경향 분석

2017년 하반기 소방직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전반기는 그동안의 소방 시험의 유형을 뒤집는 당황스러울 정도의 대략난감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시험에서는 예년과 비슷한 난도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문법 영역의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2017년 하반기 소방직 출제 영역과 문항을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출제 영역 | 문항 수 | 세부영역       | 출제내용                                                                                                                   |
|-------|------|------------|------------------------------------------------------------------------------------------------------------------------|
| 문법    | 8 문항 | 언어와 국어     |                                                                                                                        |
|       |      | 음운론        | 음운의 체계                                                                                                                 |
|       |      | 형태론        | 단어의 형성(파생어·합성어)<br>품사(동사-형용사 구별)<br>용언의 활용(기본형 찾기)                                                                     |
|       |      | 문장론        | 문장성분의 구별                                                                                                               |
|       |      | 의미론        | 중의적 의미                                                                                                                 |
|       |      | 표준어규정      |                                                                                                                        |
|       |      | 한글맞춤법      | 표기가 옳은 것                                                                                                               |
|       |      | 외래어·로마자    | 로마자표기(집현전)                                                                                                             |
| 문학    | 8 문항 | 고전문학 (2문항) | · 가사-관동별곡<br>· 사설시조(창 내고자-)                                                                                            |
|       |      | 현대문학 (6문항) | <b>현대시</b><br>· 우리가 물이 되어(강은교)<br>· 머슴 대길이(고은)<br>· 남으로 창을 내겠소(김상용)<br><b>현대소설</b><br>· 화수분(전영택)-소설특징<br>· 사평역(임철우)-시점 |
| 비문학   | 4 문항 | 이론         |                                                                                                                        |
|       |      | 독해         | · 사실적 이해<br>· 글의 진술방식<br>· 추론적 독해<br>· 추론적 독해(괄호에 들어갈 말)                                                               |
| 한자성어  |      | 한자         |                                                                                                                        |
|       |      | 한자성어       |                                                                                                                        |

참고-2017년 전반기 출제경향

| 출제 영역   | 문항 수 | 세부영역   | 출제내용                            |
|---------|------|--------|---------------------------------|
| 문법      | 4 문항 | 언어와 국어 |                                 |
|         |      | 음운론    |                                 |
|         |      | 형태론    | 단어의 형성(파생어·합성어)<br>단어의 형성(합성동사) |
|         |      | 문장론    | 높임법 구별하기<br>(주체·객체·상대높임)        |
|         |      | 의미론    | 단어의 의미관계<br>(반의관계, 상하관계)        |
|         |      | 표준어규정  |                                 |
|         |      | 한글맞춤법  |                                 |
| 외래어·로마자 |      |        |                                 |

|      |      |            |                                                                                 |
|------|------|------------|---------------------------------------------------------------------------------|
|      |      | 어휘·어법      |                                                                                 |
| 문학   | 8 문항 | 고전문학 (4문항) | · 정지상 ‘송인’<br>· 김만중 ‘사씨남정기’<br>· 박지원 ‘광문자전’<br>· 고전 소설 유통 과정 용어 (필사, 세책, 전기수 등) |
|      |      | 현대문학 (5문항) | · 정일근 ‘어머니의 그릇’<br>· 김광균 ‘추일서정’<br>· 이태준 ‘책’<br>· 이영서 ‘책과 노니는 집’ 2문제            |
| 비문학  | 7 문항 | 이론         | · 토론에서 사회자의 역할                                                                  |
|      |      | 독해         | · 두 글의 비교<br>· 다루지 않은 내용<br>· 글의 내용 일치<br>· 대화 함축<br>· 말하기 방식<br>· 자료 활용        |
| 한자성어 | 1 문항 | 한자         |                                                                                 |
|      |      | 한자성어       | 상황과 다른 고사성어 찾기<br>· 윤선도 ‘만홍’                                                    |

소방직 공무원 시험에서 국어영역의 평가는 크게 ‘문법, 문학, 비문학, 한자’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전 영역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만 예년에 비해 문법 문제의 출제가 많았고 비문학의 비중은 낮았습니다. 문학은 예년과 비슷한 문항과 수준의 문제였고 한자성어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출제경향을 몰라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그 방향을 잡기가 막막해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제 그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앞으로의 출제경향과 그 대책을 세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제경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수험계획을 세워서 1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소방사관학원과 함께 잘 대처한다면 합격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문제를 공개하지 않아 복원하기가 어려운데 소방사관학원 박우찬 선생님의 노력으로 웬만큼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28일 시행 소방직 기출문제

## 손정효 국어

두드림 국어

1. 다음 글에 사용된 진술 방식은?

피라미드는 21세기 장례문화에 걸맞지 않은 오래전의 무덤이지만 이집트 사람들의 뛰어난 건축 기술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 가치를 인정 받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래식도 비록 21세기 사람들의 정서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인류의 뛰어난 음악적 능력을 보여주는 사랑 받은 것입니다.

- ① 분류                      ② 예시  
③ 유추                      ④ 비교

[정답] ③ [진술 방식]

[해설] 유추는 예상되는 독자에게 매우 생소한 어떤 개념이나 매우 어렵고 복잡한 어떤 주제를 설명하고자 할 경우, 그 개념이나 주제를 보다 친숙하고 단순한 어떤 개념이나 주제와 하나씩 하나씩 비교해 나가는 방법이다. (확장된 비교) 피라미드에 빗대어 클래식스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음운이 있는 것은?

혀가 앞에 있고, 입술이 둥글게 되는 단모음

- ① 과학                      ② 귀족  
③ 돼지                     ④ 장수풍뎅이

[정답] ② [음운 체계]

[해설] 단모음 중 전설모음이면서 원순모음인 것을 묻고 있다. ‘ㄱ’과 ‘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 혀의 위치<br>입술 모양<br>혀의 높낮이 | 전설 모음 |       | 후설 모음 |       |
|--------------------------|-------|-------|-------|-------|
|                          | 평순 모음 | 원순 모음 | 평순 모음 | 원순 모음 |
| 고모음                      | i     | ɥ     | e     | ʊ     |
| 중모음                      | e     | o     | a     | ɑ     |
| 저모음                      | æ     |       | ɐ     |       |

3. 다음 중 로마자 표기법에 맞는 것은?

- ① 합덕 Hapddeok  
② 학여울 Hakyoul  
③ 집현전 Jiphyeonjeon  
④ 축석루 Choksseongnu

[정답] ③ [로마자 표기법]

[해설] 집현전[지편전]-체언에서는 축약이 되더라도 ‘ㅎ’을 밝혀 적는다.

[상세해설] ① 합덕[합떡] Hapdeok -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② 학여울[hangnyeoul] ④ 축석루[축생누] Chokseongnu -된소리  
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4. 다음 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處女)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萬里)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人跡)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① 가정의 형식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음성 상징어를 대립적으로 제시하여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 ③ 명령형과 청유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청자를 명시하여 대화하듯이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② [현대시]

[해설]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음성 상징어의

대립은 옳지 않다.

## 핵심정리

##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상징적, 의지적

**표현** '물이 되어 만난다면'이라는 미래 가정법 형태로 시작하여 만남에 대한 소망을 물과 불의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함.

**특징** ① 이별의 고통, 슬픔, 한스러움이 아닌 만나고 싶은 열망, 만남에 대한 기대를 적극적, 능동적 자세로 노래함.  
② 물과 불의 이미지로 만남을 노래함.

## 구성

- ① 물이 되어 만나고 싶은 심정 (1,2연)
- ② 물과 불의 대비 (3연)
- ③ 불이 지난 뒤의 만남 (4,5연)

## 제재 물의 흐름과 만남

**주제** 현실의 부조리를 해소하고 조화로운 합일을 이루고 싶은  
소망

**출전** 시집 『우리가 물이 되어』, 1986

## 시어의 상징성

① 물

- \* 합일의 매개체이며, 고독을 해소시킬 수 있는 존재
- \* 역사의 흐름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포용하는 생명, 정화된 힘
- \* 비인간적이고 문명화된 불순물을 떨쳐버린 순수한 존재

② 물

- \* 삶의 고독과 절망을 가중시키는 허무한 존재
- \* 삶을 병들게 하고 서로에게 갈등을 안겨 주는 이념, 모든 부정적 현상

5. 다음 중 중의적 문장이 아닌 것은?

- ① 철수는 민호와 영희를 만났다.
- ② 그는 고향에서 온 친구를 어제 만났다.
- ③ 예쁜 소녀의 옷을 빌려 입었다.
- ④ 엄마는 아침에 꿀과 토마토 두 개를 주었다.

[정답] ② [중의성]

[해설] ① ‘와’가 접속조사인지 부사격 조사인지 명확하지 않다. ③ 관형어 ‘예쁜’의 수식이 ‘소녀’인지 ‘옷’인지 모호하다. ④ ‘굴과 토마토’ 두 개인지, ‘굴’과 ‘토마토 두 개’인지 모호하다.

6.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웬 남자가 내게 말을 붙였다.
- ② 바지의 해어진 부분에 짜깁기를 하다.
- ③ 약을 먹은 효과가 급세 나타났다.
- ④ 옛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다.

[정답] ① [한글 맞춤법]

[해설] ① 왜(×)→웁 \* ‘웁’은 ‘어떠한’의 의미를 가진 관형사이다.

[상세해설] ② 찌깍기-직물의 찢어진 곳을 그 감의 울을 살려 본디대로 흠집 없이 짜서 깎는 일. \*찌깍기(×) ③ 금세-지금 바로. ‘금시에’가 줄어든 말로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된다. \*금세-물건의 값. 또는 물건값의 비싸고 싼 정도 ④ 오랜만- ‘오래간만’의 준말이다.

7.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이 ㉠너무나 소중한 함께라면

마법의 ㉔성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의 동굴 속 ㉞멀리 그대가 보여

- 「마법의 성」 노래 가사

- ① 관형어                      ② 부사어  
③ 목적어                     ④ 관형어

[정답] ④ [문장 성분]

[해설] ‘멀리’는 ‘한 시점이나 지점에서 시간이나 거리가 몹시 떨어져 있는 상태로’의 의미로 쓰이는 부사로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이다.(그대가 멀리 보여)

8. 다음 중 품사가 다른 하나는?

- 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 ② 온 사람이 만 명이나 되어 보인다.
- ③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다.
- ④ 가뭄에 나무가 잘 크지 않는다.

[정답] ① [품사]

[해설] ‘없다’는 동사의 활용 형태로 ‘는’을 취하고 있지만 형용사이다. 나머지는 동사이다.

9. 다음 밑줄 친 부분의 기본형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분다: 식욕이 왕성하여 몸이 많이 불었다.
- ② 짓다: 그는 고향에 기와집을 지었다.
- ③ 치루다: 두 차례의 호란(胡亂)을 치러 물정이 몹시 어지럽던 시절
- ④ 싣다: 차에 짐을 싣어 나르다.

[정답] ③ [한글 맞춤법]

[해설] 치르다(×)→치루다 \*치르다+어>치러( ‘으’ 탈락)

10. 다음 중 단어 형성이 다른 것은?

- ① 돌배                      ② 새해  
③ 돌다리                ④ 우짚다

[정답] ① [단어 형성]

[해설] ‘돌-’은 ‘품질이 떨어지는’ 또는 ‘야생으로 자라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므로 ‘돌배’는 파생어이다. 나머지는 합성어이다.

11. 다음 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窓(창) 내고자 窓(창)을 내고자 이 내 가슴에 窓(창)을  
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저귀 수돌저귀 비  
목결새 크나큰 장도리로 쪽닥 바가 이내 가슴에 창을 내  
고쟈.

잇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져 불가 흐노라.

- ① 초장은 AABA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 ② 중장에서는 문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 ③ 중장이 사설체로 길이가 늘어나고 있다.
- ④ 중장은 평시조의 일반 형태를 벗어났다.

[정답] ④ [사설시조]

[해설] 평시조의 일반적인 종장 형식은 ‘3543’이다.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되어 있어 형식적 제약이 가장 엄격하며, 종장의 둘째 음보도 5음절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사실시조는 일반적인 평시조 형태를 벗어나 중장 부분이 아주 길어지는 파격의 형태를 가지는 것이 특징인데 이 작품에서는 글자 수의 가감은 있으나 평시조의 종장 형식을 가지고 있다.

12. 다음 소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수분은 양평서 오정이 거의 되어서 떠나서 해져 갈 즈음해서 백리를 거의 와서 어떤 높은 고개에 올라섰다. 칼날 같은 바람이 뺨을 친다. 그는 고개를 숙여 앞을 내려다보다가 소나무 밑에 희끄무레한 사람의 모양을 보았다. 그것에 곧 달려가 보았다. 가 본즉 그것은 옥분과 그의 어머니다. 나무 밑 눈 위에 나뭇가지를 깔고, 어린 것 업은 헌 누더기를 쓰고 한끝으로 어린것을 꼭 안아 가지고 웅크리고 떨고 있다. 화수분은 왁 달려들어 안았다. 어멈은 눈은 떼으나 말은 못한다. 화수분도 말을 못한다. 어린것을 가운데 두고 그냥 껴안고 밤을 지낸 모양이다.

이튿날 아침에 나무장사가 지나다가 그 고개에 젊은 남녀의 껴안은 시체와, 그 가운데 아직 막 자다 깬 어린이가 등에 따뜻한 햇볕을 받고 앉아서 시체를 툭툭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어린것만 소에 싣고 갔다.

- 전영택, 「화수분」

- ① 사건 해석을 주관적으로 하고 있다.
- ② 생략의 기법을 사용하여 여운을 강조했다.
- ③ 암시와 비약으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 ④ 비극적인 사건을 냉철하고 객관적이며 담담한 문체로 서술하고 있다.

[정답] ④ [현대소설]

[해설] 어린 것 하나만 살아 남고, 화수분 내외가 동사하는 비극적인 장면과 과정을 냉정하게 그리고 있으며 극빈한 가정 사정이나 혹독한 기후 조건을 철저히 객관적인 필치로 제시하고 있다.

## 핵심정리

## 갈래 단편 소설, 액자 소설

**성격** 객관적, 사실적, 묘사적

**경향** 사실주의, 자연주의, 인도주의

**문제** 사실적이고 간결한 문제

**시점** 혼합시점(1인칭 관찰자 시점: 1, 2, 4, 5장 1인칭 서술자 시점: 3장 전지적 작가 시점: 6장)

**제재** 일제 강점 하 하층민의 가난한 삶**주제** 가난한 부부의 사랑과 부활의 의미

**출전** <조선문단>(1925)

## 감상의 길잡이

궁핍한 환경 속에서 굶주리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화수분 일가의 가족 비극을, 나를 서술자로 하여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필치로 그려나가는 전영택의 대표작이다. 당시 신경향파 작가들이 즐겨 다루던 극빈과 비참한 생활이라는 소재였음에도 작자 스스로의 느낌을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인간의 원시적인 온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일정한 반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화수분’은 재물이 자꾸 생겨서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다는 단어 자체의 의미와 주인공이 처한 비참한 생활이 대비되면서 비극적 결말로 처리되고 있다. 통일된 인상, 경이적 모멘트, 정확한 묘사, 치밀한 구성이라는 단편 소설의 특징이 모두 나타나 있으며 묘사보다는 서술에 의존하고 있다. 물론 묘사도 부분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실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마지막 햇빛 속에 살아 움직이는 어린 아이의 모습은 비극적 묘사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즉 부활의 상징이다. 이런 것들에서 그의 인도주의 정신이 표면화된다.

13. 다음 밑줄 친 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珠玑簾縷를 고터 짓고, 玉帛階계를 다시 쓸며, 啓계明明  
星성 듯도록 곳초 안자 브라보니, ㉠白백蓮년花화 한 가  
지를 뉘라셔 보내신고. 일이 도흔 世세계계 늑대되 다 뵈고  
져. 流流霞하酒주 그득 부어 들다려 무론 말이, ㉡英영雄  
웅은 어디 가며, 四스仙선은 괴 뉘러니, 아미나 맛나 보아  
넷 괴별 못자 하니, 仙선山산 東동海회에 갈 길히 머도 멀  
사.  
松송根근을 베어 누어 풋즙을 얼푯 드니, 꿈에 혼 사람이  
날드려 닐은 말이,그딴 내 모르랴, 上상界계에 眞진仙선  
이라. 黃황庭庭經경一일字자를 었디 그릇 닐거 두고, 人인  
間간의 내려와서 우리를 쫓오는다. 저근덧 가디 마오. 이  
술 혼 잔 머거 보오. 北북斗두星성 기우려 滄창海海水수  
부어 내여, 저 먹고 날 머겨늘 서너 잔 거후로니, 和화風  
풍이 習습習습하야 兩兩腋익을 추혀 드니, 九구萬만里  
長당空공에 저기면 놀리로다. ㉢이 술 가져다가 四스海海  
에 고로 논화, 億億萬萬蒼창生生을 다 醉취케 밍근 後후  
의, 그제야 고터 맛나 쏘 한 잔 흥갓고야. 말 디자 鶴학  
을 타고 九구空공의 올라가니, 空空中中 玉玉蕭蕭 소리 어제  
런가 그제런가. 나도 즘을 썬여 바다를 구벼보니, 기괴를  
모르거니 그인들 었디 알리. ㉣明明月월이 千천山山萬萬落  
낙의 아니 비췌 덕 업다.

- 정철, 「관동별곡」

- ① ㉠ 달빛을 나타내는 비유이다.
- ② ㉡ 영웅과 신선을 만나 그들의 소식을 묻고 있다.
- ③ ㉢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이 나타난다.
- ④ ㉣ 임금의 은총이 온 세상에 퍼져 있다.

[정답] ② [조선전기 가사]  
[해설] ㉢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옛날의 영웅은 어디로 갔으며, 신라 때 사선(四仙)은 그 누구이던가?” 아무나 만나 보아 옛날 소식을 물으려 하니, 삼신선이 있다고 하는 동해 바다로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14. 다음 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새터 관전이네 머슴 대길이는  
상머슴으로  
누룩 도야지 한 마리 번쩍 들어  
도야지 우리에 넘겼지요  
그야말로 도야지 먹 따는 소리까지도 후딱 넘겼지요  
㉠밥 때 늦어도 투덜덜 줄 통 모르고  
이른 아침 동네길 이슬도 털고 잘도 치워 환히 가르마 났  
지요  
그러나 낮보다 어둠에 빛나는 먹눈이었지요  
머슴방 등잔불 아래  
나는 대길이 아저씨한테 가가거겨 배웠지요  
그리하여 장화홍련전을 주룩주룩 비오듯 읽었지요  
어린이 세상에 눈떴지요  
일제 36년 지나간 뒤 가가거겨 아는 늙은 나밖에 없었지  
요  
  
대길이 아저씨한테는  
주인도 동네 어른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지요  
살구꽃 핀 마을 뒷산 올라가서  
㉡홀적삼 처녀 따위에는 눈요기도 안 하고  
지갯작대기 뉘어 놓고 먼 데 바다를 바라보았지요  
나도 따라 바라보았지요  
우르르르 달려가는 바다 울음소리 들리는 듯하였지요  
  
㉢찬 겨울 눈더미 가운데서도  
덜렁 겨드랑이에 바람 잘도 드나들었지요  
그가 말하였지요  
㉣사람이 너무 호강하면 저밖에 모른단다  
남하고 사는 세상이란다  
  
대길이 아저씨  
그는 나에게 불빛이었지요  
자다 깨어도 그대로 켜져서 밤새우는 긴 불빛이었지요  
- 고은, 「머슴 대길이」

- ① ㉠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다.
- ② ㉡ 넓은 세계를 동경하고 있다.
- ③ ㉢ 인물의 가난한 삶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시적 화자인 나의 이기심을 비판하고 있다.

[정답] ④ [현대시]  
[해설] ㉣은 이기적이고 안일한 삶을 경계하고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머슴 대길이의 인물됨을 드러내고 있다.

핵심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민중적, 토속적, 회상적  
특징



- 이야기체로 친근한 분위기 형성(‘-지요’)
- 토속적 시어로 향토적 정서의 표출
-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하여 사실성의 강조

**주제**

- 함께 하는 삶의 소중함(더불어 사는 사람의 아름다움)
- 민중의 건강성과 공동체적 삶의 소중함

15. 다음 시에 나타나는 시적 화자의 태도와 가장 가까운 것은?

남으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같이  
팽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익절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 김상용, 「남으로 창을 내겠소」

- 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천상병, 「귀천」
- ②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김소월, 「초혼」
- ③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 신경림, 「농무」
- ④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정답] ① [현대시]  
[해설] 자연 친화적인 삶 속에서 체념과 달관의 자세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달관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은 천상병의 ‘귀천’이다.  
[상세해설] ① 입을 잃은 슬픔과 그리움이 주관적 영탄으로 직설적으로

표출되며 ‘돌’로 응축되어 드러나고 있다. ③ 농민의 분노와 한을 반어적(신명)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비둘기를 의인화하여 현대문명으로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문명비판의 시이다.

핵심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낭만적, 관조적, 서정적, 전원적, 자연 친화적

**운율** 각운의 요소(‘-소’, ‘-요’, ‘-오’의 반복을 통한 규칙적인 반복)

**어조** 소박하고 겸손하고 친근한 경어체의 회화조(會話調)

**시적화자의 태도** 자연친화적 삶의 자세

**구성** - 1연 : 전원에서의 소박한 삶에 대한 동경  
2연 : 자연을 즐기며 훈훈한 인정을 나누는 삶  
3연 : 삶에 대한 체념과 달관

**제재** - 전원생활

**주제** - 전원의 평화로운 생활을 갈망함.  
전원생활을 통한 달관의 삶. (자연 친화적인 삶의 자세)

**특징** - ① 2음보격이 주된 율격을 이룸  
② 비유법을 사용함  
③ 함축미 있는 표현  
④ 친근하고 소박한 어조  
⑤ ‘-오’라는 예사 높임의 활용 어미

**출전** - <망향>(1939)

16. 다음 소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두 줄기 레일이 두툼한 눈을 뒤집어쓴 채 멀리 뻗어 나간 쪽을 바라본다. 낮엔 철길이 저만큼 산모퉁이를 돌아가는 모습까지 뚜렷이 보였다. 봄날 몸을 푼 강물이 흐르듯 반원을 그리며 유유히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철길의 끝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도 모든 걸 다 마치고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어느 노년의 모습처럼 그것은 껍이나 안온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철길은 훨씬 앞당겨져서 끝나 있다. 수은등 불빛이 약해지는 부분에서부터 차츰 희미해져 가다가 이윽고 흐물흐물 녹아 버렸는가 싶게 철길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 저편은 철쭉 같은 어둠이다. 어둠에 삼켜져 버린 철길의 끝이 오늘 밤은 까닭 없이 늙은 역장의 가슴 한구석을 찔러놓아 만든다.

- 임철우, 「사평역」

- ①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② 서술자가 극적이고 객관적인 묘사로 일관하고 있다.

③ 작품 밖의 화자가 등장인물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

④ 서술자의 눈에 비친 외부 세계를 주로 다루고 있다.

[정답] ③ [현대소설]  
[해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① 1인칭 주인공시점 ② 3인칭 관찰자 시점 ③ 전지적 작가 시점 ④ 1인칭 관찰자 시점

17. 다음 글의 밑줄 친 ㉠와 의미상 가장 가까운 것은?

‘내가 당초에 되고 싶었던 건 ㉠소설가가 아니었다. 다만 대학에 가서 학문을 하고 싶은 꿈에 부풀어 있었다. ... 당시만 해도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었을 뿐 졸업하고 뭐가 되는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가 아니었다. 어느 대학 어느 과가 더 출세에 유리하고, 돈을 잘 벌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식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가 아니었다. 사회적 부조리를 비판하고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지성을 길러내는 데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가 아니었다. 특히 인문대가 그러해서 우리는 인문대를 대학의 대학이라고 자부하며 기고만장했었다. .... 내가 ㉡꿈꾸던 비단은 현재 내가 ㉢실제로 획득한 비단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가본 길보다는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내가 ㉣놓친 꿈에 비해 현실적으로 획득한 성공이 훨씬 초라해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다

- 박완서,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 ① ㉠ 소설가
- ② ㉡
- ③ ㉢ 실제로 획득한 비단
- ④ ㉣ 놓친 꿈

[정답] ④ [수필] 놓친 꿈

18. 다음 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마천의 「백이, 숙제 열전」에 관한 평론

- ①
- ②
- ③ 사마천의 당시 명성을 알 수 있다.
- ④

[정답] ③ [사실적 독해]

19.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            ). 양육 과정과 텃밭 가꾸기에서 느끼는 행복이 사례로 제시 됨.

- ①
- ②
- ③
- ④ 점진적으로 자라는 것을 보며 즐거움을 느낀다.

[정답] ④ [추론적 독해]

20.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떤 마을에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각자 자신의 땅을 갖고 있었지만, 이 공동의 땅에 자신의 가축을 가능한 한 많이 풀어놓으려 했다. 자신에게는 비용의 부담이 없이 넓은 목초지에서 신선한 풀을 마음껏 먹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농가에서는 공유지의 신선한 풀이 자신과 다른 농가의 모든 가축을 기르기에 충분한가를 걱정하기보다는 공유지에 방목하는 자신의 가축 수를 늘리는 일에만 골몰했다. 그로 인해 공유지는 가축들로 붐비게 됐고, 그 결과 마을의 공유지는 가축들이 먹을 만한 풀이 하나도 없는 황량한 땅으로 변하고 말았다.

앞에서 살펴본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의 사적 이익 추구, 혹은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주류 경제학의 기본 전제를 무너뜨리는 내용이다. 개인의 합리성과 사회적 공공성이 충돌하는 영역에서는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기 쉽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까지 해결 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공유 자원을 명확하게 사유화해 개인에게 소유권을 주는 방법이 있다. 이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공공 자원에 대한 재산권을 특정 이익 집단이 가질 경우 엄청난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두 번째 방안은 공유 자원을 국유화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 통제에 나서는 것이다. 국가가 거대한 감시자가 되어 공공재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더럽히는 사람들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하면 무분별한 행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국가가 늘 합리적, 효과적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였다.

① 주류 경제학은 개인과 사회의 이익이 상충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②

③

④ 공유 자원을 국유화할 경우 충분한 감시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답] ① [추론적 독해]